

# 취약국가 지원 관련 논의 동향<sup>1)</sup>

## I. 개발, 평화 및 안보

### 1.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서의 원조국 관여

원칙, 원조배분의 투명성 제고

□ 취약국가는 국가 실패, 지역 또는 국제적인 파급(Spill-over) 효과로 사후적으로 대규모의 비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필요로 함.

- 최근 연구는 취약국가가 이웃국가의 경제성장에 1.6%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

※ 취약국가는 개도국의 약 13%를 차지하고,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취약국가는 빈곤퇴치를 이행할 능력(capacity)이나, 빈곤퇴치에 대한 정치적 의지(commitment)가 가장 약한 국가를 지칭하며, 문제국가(difficult partnership), 위

기에 처한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등의 개념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됨.

### 1) 취약국가 관련 중견관리자 포럼 회의결과와 DAC LAP의 추진계획

□ 2005년 1월 열린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 Senior Level Forum(SLF)'에서는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배분의 투명성 제고 등 공여국의 지원 원칙 등을 논의하고 원조 배분(Aid Allocations)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함.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가 다른 저소득국가와 비교하여 비적절할 정도로 낮고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흐름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 보고를 통하여 원조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취약국가

1) 지난 '05. 2. 28-3. 3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조화 고위급포럼(HLF) 및 OECD/DAC 고위급회담(HLM)에서 다루어진 의제를 요약, 정리한 것임.

에 대한 조기 경고(warning)체제 마련

※ 공여국들의 원조가 국가수행능력이 원활한 수원국들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니비소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공여국들의 원조 철수 현상이 나타남. 빈곤의 정도보다 원조를 덜 받고 있는 취약국가들은 원조 고아(aid orphan)라고 불림.

※ 참고: Investing In Development(UN Millenium Project 의 일환으로 제프리 삭스 교수가 만든 UN 보고서, '05년 1월)

-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 통치수준이 낮고 인권 남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제지원을 축소하는 반면, 통치수준이 높은(well-governed) 말리, 부르키나 파소, 이디오피아, 가나, 예멘 등 빈국들에는 '신속지위(Fast-Track Status)'를 부여, 개발 원조를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

□ DAC은 2005년 1월 열린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SLF)'의 결과와 기존의 DAC 작업결과를 기초로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취약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국제적 개입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을 발표

□ DAC LAP(취약국가에 대한 학습 및 자문반)은 동 원칙을 2005년에 2~5개 취약국가에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예정

-Service Delivery:취약국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을 LAP의 2005년 우선 과제로 선정

※ LAP(Learning and Advisory Process on Difficult Partnerships):DAC GOVNET 산하 작업반

## 2) 취약국가에서의 안전체제개혁(Security System Reform/SSR) 이행

□ 안전은 빈곤 퇴치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임.

-안전 문제는 국가실패(failed states) 등 국가,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불안정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1980년 총 ODA의 3%에서 최근 10%로 상승 (2003년 OECD 개발협력보고서)

□ 2001년 DAC에 참가한 장관들 및 원조기관장들은 수원국들이 평화적 수단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음.

□ DAC은 이미 안전체제개혁(SSR)의 이행을 통해 취약국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이에 관한 Good Practice를 형성하기로 합의

※ SSR(Security system Reform):전통적인 군사 및 경찰 체제 외에 사법기관, 정부행정조직, 언론 등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개념

□ 2004년 승인한 SSR 관련 지침을 효과적인 정책 및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DAC '분쟁, 평화, 개발협력 네트워크(CPDC)'는 2005년 거버넌스와 안전체제관리에 관한 기능적인 원칙(Operational principles)을 개발 예정

## 참고자료

### 1. 취약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국제적 개입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취약국가의 취약성은 국가역량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를 위한 개입은 그 장기적인 목표가 취약국가의 역량 강화 및 제도구축이어야 함.
- 취약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개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러한 국별 특수성(Particular country circumstances)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개발원조가 행해지는 여러 분야(정치, 안보, 경제, 사회) 영역은 상호의존성을 가짐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동체는 이러한 제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발전략의 틀을 마련해야 함.
- 개발원조 이슈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공여국 내부적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이 요구됨. 특히 정치, 경제에서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이슈를 망라한 총체적 정부차원 접근법(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요망됨.
- 원조조화(Harmonisation) 원칙은 취약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취약국가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하여 적절히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취약국가 관련 평가활동(Analysis)에 관한 공여국간 상호조화가 중요함(공동평가, 공동전략 마련 등).
- 원조일치(Alignment)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원조일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일치(Partial alignment)나 그림자 일치(Shadow alignment) 등 취약국가 형편에 맞는 방식의 원조일치를 추진함.
- 원조공여기관은 원조제공시 수원국의 제도구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예컨대, 공여기관 현지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수원국 정부가 인력난을 겪게 되는 등).
-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한데 묶어서(Mix of aid instruments)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원조흐름의 변동성(Aid volatility)이 크면 취약국에 대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조흐름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취약국가와의 공동협약체제 등을 마련하여 이에 대처해야 함.
- 취약국가는 여타 수원국보다 개발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대취약국가 개발원조는 장기적 파트너십(Long-term partnership)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 2. 2004 OECD/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HLM) 채택 SSR 관련 정책 선언(Policy Statement) 개요

- 치안체제개혁(SSR) 사업의 근거, 원칙, 목적을 상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노력한다.
- SSR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 파트너 국가에서 사업하는 원조기관 및 다른 행위자간에 조정(Coordination), 조화(Harmonisation), 효과적인 작업분담을 촉진한다.
- 안전관련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OECD 회원국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국가마다 SSR 추진과 관련 필요, 우선순위, 환경 등이 다름을 인정한다.
- 개혁과정에 있어서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지원을 제공한다.
- 이와 관련, 파트너국가의 정부가 실현성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해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민사회가 안전체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친개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혁의 출발점(Entry-point)을 확인하고 현지 행위자들과 공동 작업의 방안을 개발한다.
- 국가 차원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역적 관점을 채택한다.

## 2. 분쟁, 평화, 안보관련 지출의 ODA 적합성

### 1) 의제 요지

□ 최근 '안전과 분쟁 예방' 이 개발 원조의 일부로 논의됨에 따라 ODA 통계의 확대 문제가 제기됨.

- 사무국 추정에 따르면 분쟁, 평화, 안전에 관한 항목이 ODA 통계보고 항목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10억 불 규모의 ODA 가 증가될 것으로 평가

※ EC는 아프리카에 대한 250백만 유로 규모의 평화 유지 활동을 출범했으나 현행의 ODA 개념상 ODA 로 주장하기 곤란

#### ※ ODA 개념(1972년 이후 기본 개념에 변화 없음)

국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공적인 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다음 각각의 행위에 해당할 것

- 주된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적 개발 및 복지를 위해서 행하여질 것
- 성격상 양허적이며 적어도 25%의 무상(Grant)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10% 할인율로 산정)

□ 분쟁예방 활동의 ODA 적합성에 관한 논의는 아프간, 이라크 사태를 경험하면서 분쟁과 개발이 직결되어 있고 분쟁예방을 통한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분쟁예방 활동을 ODA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 분쟁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은 관련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여국들은 ODA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은 분쟁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쟁예방 활동의 ODA 적합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 노르웨이, 일본 등 다수 회원국이 ODA에 대한 신뢰도 및 ODA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현재 국제사회는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MDG(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ODA가 군대활동 또는 국방협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주장

- 아울러 평화유지활동 비용을 ODA에 포함시킬 경우 명목상 ODA 규모만 증가(빈곤문제는 미해결)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지침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DAC는 평화유지 등 5개의 새로운 지침(Directives)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그중 3개에 대하여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HLM(DAC 고위급회의)에 승인을 위해 상정하고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는 '군대의 개혁 및 비군사적 훈련', '평화유지' 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의 자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전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DAC는 2005년 1월 열린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SLRF)'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쟁예방 및 평화정책에 관한 5개 이슈 중 아래 3개 이슈를 ODA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2005년 HLM 회의에서 승인함.

- ① 치안시스템 개혁을 위한 기술협력은 ODA에 포함
- ② 평화정착,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은 ODA에 포함(단, 군사전략 및 방위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며 국방부 또는 군에 대한 직접지원도 제외됨)

③ 소형무기(SALW)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협력은

ODA에 포함. 단, 무기압수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제외되며 군대에 의한 무기 수거 및 폐기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제외, 또한 국사력 증강에 대한 지원도 제외함.

□ 그러나 군대의 개혁 및 비군사적 훈련(인권, 투명 경영 등), 평화유지활동의 ODA 산정 등 2개 이슈에 대하여는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움에 따라 추후 논의기로 함.

## 참고자료

### 1. 2004 고위급회의(HLM)시 ODA 승인 항목

- ① 민주적 Governance와 안전체제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 배양  
-주요항목: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 사법부, 행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군사 및 전투능력에 대한 지원은 제외.
- ② 안전 체제 검토(review)  
-주요항목: 투명한 안전시스템 검토를 위한 정부, 국회 및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 ③ 안전 관련 지출의 관리  
-주요항목: 안전 관련 지출에 대한 예산, 관리, 회계, 감사 등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력.
- ④ 안전시스템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주요항목: 안전시스템 관련 책임, 투명성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민단체의 능력배양 지원.
- ⑥ 소년 병사  
-주요항목: 소년병의 모병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적용 등에 대한 지원.
- ⑦ 신뢰구축, 분석능력 개발, 분쟁 예방조치  
-주요항목: 국가 및 지역 분쟁 예방, 신뢰구축, 평화구축 등의 활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능력배양 지원.
- ⑧ 소형 무기 및 경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  
-주요항목: 소형 무기의 확산 방지 및 수집 제거활동과 관련된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인 조치에 대한 지원.

### 2.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2개 지침(안) 세부내용

#### 1) 군대에 대한 개혁 및 비군사적 훈련

현행 DAC 지침상 군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ODA 통계를 보고할 수 없음. 최근 군대에 대한 인권, 민주적 가버넌스 등에 개한 개혁 및 교육지원이 증가하면서 동 지원 재원을 ODA로 보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지침상의 무조건적 배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2) 평화유지(Peacekeeping)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평화유지 활동 관련 기존 개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공여국 군대에 의한 평화유지 비용이 ODA로 산정될 수 있다면 같은 활동을 하는 수원국 군대에 대한 지원도 ODA로 산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지침이 'Post conflict'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Prevention'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함.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등이 지지

일본, 영국 등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군대는 엄연한 성격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문안이 기존 ODA의 Integrity를 해칠 수 있음을 주장.

-노르웨이는 적은 액수의 재원을 ODA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지적하고 최근 수 년간 전세계적으로 국방비가 18% 증가한 반면 ODA는 불과 3%밖에 증가하지 않았는 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재원조달을 재원이 풍부한 국방비에서 조달할 것을 주장.

-EC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군대의 훈련, 평화유지 관련 새로운 지침의 경우 DAC에서 지침을 제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통계를 산정하는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고 실현성이 없는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지적.

## II. 취약국가(Fragile States) 및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원조효과 증진

- 원조조화와 일치에 관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공여기관들 간에는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매우 빈약한 취약국가에서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공여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취약국가들의 요구에 주목하면서 원조조화와 일치 관행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음.
- 취약국가에서는 정부의 역량과 정통성이 부족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원조 접근법들 간의 공조 혹은 균형이 부족함. 그 결과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었으며 그나마 부족한 국가역량은 더욱 약화되었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약국가에서 원조조화와 일치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상당수 국가들이 분쟁 중에 있거나 현재 분쟁에서 탈피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여국의 지원이 평화유지 및 치안 등 안보분야나 외교적 조치인 경우가 많음.
- 한편, 공여기관 기업들의 교역 혹은 투자 관심사항이 수원국 개발목표와 상충되거나 오히려 분쟁을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개별 국가에서 올바른 국정관리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원조조화, 주인의식, 일치 등 주요 개념

#### (1) 원조조화(harmonisation) : 공여국-공여국간 조화

- 원조공여국간 상이한 원조집행방식이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원조공여국들의 원조집행방식에 조화(조율)를 기함으로써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자는 개념

#### (2)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 공여국은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립할 수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수원국은 실행가능한 빈곤감소전략(PRS) 수립 등 개발계획수립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개념

#### (3) 원조일치(alignment) : 공여국-수원국간 조화

-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개발전략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 (4) 개발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수원국은 개발전략 수립과 개발과정 전 단계에서 개발결과 관리를 고려해야 하며, 공여국들은 상호공조하여, 수원국의 전략에 기초한 개발원조 제공에 노력해야 함.

### 1. 취약국가에서의 원조일치

- 취약하긴 하나 의지와 역량이 있는 국가에서는 원조일치가 가능할 수 있음.
- 원조일치가 어려운 취약국가에는 공여국들 간에 ‘원조일치 노력을 조화(Harmonise to align)’ 시킬 것이 요구됨. 공여국은 취약국가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고취할 수 있도록 원조조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공여국들은 취약국가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조화시켜나가야 함. 이는 강한 정부의 지도력이 없이도 이행가능하며 공여국간 공동평가(Joint assessment), 공동 전략(Joint strategies) 수립, 정치개입의 조정(Coordination of political engagement)과 같은 상향적 분석과 공여국간 공

동 공여국사무실 설치와 같은 작업을 시작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임.

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 2. '부분적/새도우 일치'의 개념

□ 이는 공여국이 취약국가의 상황에 맞게 일치(Alignment)를 실행해야 함을 의미함. 통치력이 약한 취약국가에서는 정부주도의 일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여국은 이러한 상황에 맞게 일치를 추구해야 함. 공여국들은 분야별, 혹은 국가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부분적 일치), 이것도 불가능할 때는 새도우 일치(Shadow alignment)를 추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시스템과 행정체계에 순응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함.

- '부분적 일치'는 공여기관들이 충분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에서 원조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런 부분적 일치가 가능치 않은 경우에는 새도우 일치가 효과적일 수 있음.

- '새도우 일치(Shadow alignment)'는 기존의 정부제도와 부합하는 (조화된) 원조프로그램을 일컫음. 이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접근법으로 이를 통해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 접근법의 중심요소는 예산주기, 예산구분, 회계, 조달, 감사 혹은 조직구조 등에 있어 호환 가능

## 3. 취약국에서의 개발결과 관리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의 장기적 목적은 합법적, 효과적 국가 제도의 복구임. 주인의식, 일치, 조화, 개발결과 관리 등 원조의 효과 제고는 취약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취약국가의 경우 주인의식과 역량이 결핍되어 있고 기초서비스 전달 등 즉각적인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

□ 수원국의 안보(Public safety), 올바른 국정관리(Good governance), 국민에게 기초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와 통치구조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여야 함.

- 아직 국가개발전략이 없는 취약국의 경우에는 공여국과 협력하여 '과도기 성과관리 매트릭스(Transitional Results Framework)'와 같은 간단한 전략기획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 '과도적 성과관리 매트릭스(Transitional Results Matrix)'는 취약국가에서 원조조화 및 일치 달성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접근법은 2005년 1월 런던에서 개최된 '취약국가에서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 포럼(Senior level Forum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Fragile States)'의 주요 주제로 논의됨.

## 참고자료

### 1. 과도적 성과관리 매트릭스(Transitional Results Matrix/TRM)

- TRM은 취약국가에서 공여국간 일관성 있는 결과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빈곤감소전략의 중요한 원칙을 취약국가에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임.
- 이는 로마 선언과 원조 조화 의제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원칙(단순성(Simplicity), 선택력(Selectivity),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 복구의 통합, 주인의식(National ownership) 그리고 공여기관 구매(Donor buy-in))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과도기 상황의 취약국가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
- TRM을 통해 결과지표와 점검가능한 목표의 활용이 가능함.
- TRM은 전략적 계획수립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도구로서, 그리고 공여기관간 공조 우산의 역할을 하고 공여기관과 수원국 정부 간의 공동 업무에 관한 협약의 역할을 하도록 기획됨.
- TRM은 전반적인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분쟁 이후 재건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

### 2. 취약국가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견관리자포럼(SLF) 결과(2005. 1. 13-14, 런던)

- 주최: OECD 개발원조위원회/유럽집행위(EC)/UNDP/WB
- 주요 내용
  - 취약국가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공여국의 정책 일관성 제고방안 논의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배분 논의
  - 취약국가에 대한 분석, 전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여국간 원조조화 제고방안 논의